

Why Engage in Public Service Co-production for Conflict Prevention?

- A Case of Seoul -

Seok Hyeon Choi*

Institute for Poverty Alleviatio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Yonsei University, 1 Yonseidae-gil, Wonju, Gangwon-do, Korea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mechanism of citizen participation for co-production as an innovativ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Recently, co-production in public service provision has drawn attention from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around the world as it may prevent social conflict in the local society.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adopting the co-production model to the public service provision,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question of why citizens participate in co-production of public services. This research develops the theoretical and analytical models to deal with the question based on attitude theory and social capital theory. The model explains that citizens' motivations of participating in the provision of co-production are associated with citizens' identity for the region where they live or mediated by their trust and hospitality for the community. This research also discusses the academic relevance of the findings and policy suggestions for policymakers.

Key words: social conflict, public service, co-production, place identity

1. 서론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생산과 제공은 현대 국가의 중요한 기능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최근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의 증가로 한편에서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비선호시설의 지역 설치를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둘러싼 지역 사회 내 갈등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치매 노인 돌봄 시설이나 장애인 교육 시설 등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

는 공공서비스 제공 시설로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나, 이러한 시설들이 입지할 지역에서는 재산가치의 하락, 사고의 위험성, 소음 발생 등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 간의 갈등이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지방정부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공공서비스를 생산, 전달하는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켜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Corresponding author: Seok Hyeon Choi, Tel. +82-33-760-5450, Fax. +82-33-760-5450, e-mail. shsego@naver.com

1970년대 미국 학계에서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영역 참여를 개념화한 공동생산(Co-production)이 최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적 모델로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공동생산 개념은 기존의 공공서비스와 공공행정 전문가 혹은 생산자와 시민들이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생산에 대한 최근 관심의 원인은 다소 단순하다. 즉,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의 공공영역에서 이뤄지던 공공서비스 생산방식으로는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하는데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양을 확대하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기존의 공공부문의 공공서비스 전문가와 함께 직접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서비스 다양한 요구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공공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공동생산 모델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Ostrom & Ostrom, 1977; Parks, et. al., 1981). 공동생산의 원형적 모델은 단순히 공공서비스 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 모델이었으나(Arnstein, 1969; Tomas, 1995),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이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정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공급원을 다양화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공동생산 모델의 진화는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하는 자조적 서비스 조직을 구성하는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시민들의 경험을 공공서비스에 반영하는 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서구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내에서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기존의 공공 보육시설이나 민간 시설이 아닌 공동육아 시설을 운영하는 대안적 육아공동체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공동육아 모델을 공공 보육체계에 포함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최근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발전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경제와 공동체조직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협업 사업들은 사업의 성립과 실행, 그리고 평가까지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공동체 조직이 주민들의 요구와 참여에 기반을 두어 사업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의 각기 다른 이해를 지방정부가 조정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사업의 내용과 진행방향을 둘러싸고 지역 내 갈등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공공서비스 정책 결정과 생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왜 특정 시민들은 공동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다른 시민들은 참여에 관심이 없거나 소극적인 것일까? 최근 공동생산에 관한 학문적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질문에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공동육아 모델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공공서비스 생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는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을 제시하기도 하고(Percy, 1984),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서비스 생산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 등의 무형적 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Ostrom, 1975). 하지만, 이러한 무형적 보상(intangible rewards)에 대한 기대가 과연 시민들의 공동생산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여전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생산에 있어 지역 내 주민들의 갈등을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공동생산에 대한 시민참여 요인을 파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동생산은 시민들이 정부와 협력 하에 공동서비스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패러다임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물론, 갈등관리형 공동생산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역량이 선결과제로 여겨지고 있다(Kim & Choi, 2018).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동생산 성격의 사업인 마을공동체 사업과 공유도시 사업에서 서울 시민들의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관계적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공동생산의 주민참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단초를 찾고자 한다.

공동생산 모델을 보다 정치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동생산 참여를 이끄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 참여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공동생산 참여 동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시민들의 지역 사회 참여 동인에 관한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들에 기반을 두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한 이후에 서울 연구원의 2017년 서울서베이(Seoul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된 모델에 따라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설정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시민들의 지역 사회참여와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 기반을 두어 시민들의 공동생산 참여 동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모델을 구성하고, 서울연구원에서 생산한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동생산 참여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공동생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공동생산 모델과 협업적 거버넌스

1. 공동생산 모델과 시민참여

최근의 공공서비스 개혁은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 수요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라는 다소 모순적인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분

리되어 있던 서비스 공급자 혹은 생산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 논의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공동생산(co-production) 모델에 기반을 두어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생산(co-production)에 대한 정의는 학자와 국가별로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생산은 서비스의 제공자(공급자)와 수혜자(소비자)가 동등한 주체로서 생산의 과정에 참여하는 일련의 자발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Cahn, 2004). 경영학에서 공동생산 개념은 기업 경영에서 소비자 참여를 통하여 소비자의 기호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자 경영 전략을 지칭한다. 반면, 공공서비스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을 둔 서비스 생산과 공급이라는 전통적인 모델에 대응하는 모델로 공동생산 모델에 주목하고 있다.

‘공동생산’이라는 용어는 Ostrom(1972)의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다(Ostrom, 1972; Goodwin & Cahn, 2018). 그는 미국 시카고시를 사례로 하여 주민들이 경찰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도시일수록 범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에서 시민이나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Ostrom(1972)은 기존 관료와 전문가에 의한 공공서비스 모델이 가지는 장점, 즉 단일한 공공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면에서 우월한 기존 인식을 시카고 지역의 공공안전 서비스의 사례를 분석하며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Ostrom(1972)의 공동생산 모델은 일반적으로 공동생산에서 상정하고 있는 시민과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공급자에 의한 공공서비스 생산보다 시장의 민간 공급자와 포함한 다양한 공급자들의 존재와 이들 간의 네트워크가 공공서비스의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반면, 영국에서는 비영리단체와 공동체 조직의 공공서비스 생산 참여 모델로 공동생산 모델을 제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Osborne & McLaughlin, 2004). 특히, 영국에서 공동생산은 공동체 조직의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의사결정 참여와 서비스 생산 참여 모델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따라 공동생산과 더불어 공동관리(co-management)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독일과 같은 유럽 대륙 국가들은 영국의 공동생산 모델과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서비스의 기획과 생산, 전달에 있어 비영리 조직과 공동체 조직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대륙 유럽 국가들은 시민들이 본인들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특히 부모의 공동육아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Pestoff, 1998). 더 나아가 대륙유럽의 공동생산 모델은 시민들이 공공서비스 생산 참여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을 통하여 공공과 시민이 공동으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창출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부에서는 공공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기획, 관리, 전달,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공동생산 모델로(Osborne & Strokosch, 2016: 640), 공동창조(co-creation)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을 둔 공동생산으로 사회적 가치가 창조되는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Gebauern & Enquist, 2010). 다시 말해, 포괄적인 공동생산 모델은 서비스 이용자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서비스 생산에 참여하여 공공부문과 시민들 간의 협력적 동반 관계를 형성, 시민들이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있어서의 결정권을 확대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협의의 공동생산 모델은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 자발성에 기반을 두어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사회적 가치가 창조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Osborne, et. al.(2016)은 공동생산 개념과 공동창조 개념을 이론적으로 비교하면서 공동생산 모델은 현재의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창조 모델은 현재의 개인의 사회경제적 욕구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기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Osborne & McLaughlin(2004)은 협의의 공동생산(co-production) 개념이 공동 거버넌스(co-governance), 공동관리(co-management)와 구별되는 특성을 크게 국가와 공동체와의 관계, 공공서비스의 생산 단계에서의 공동체와 시민의 참여 정도, 그리고 시민의 조직화된 활동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먼저 국가와 공동체와 관계 측면에서 공동거버넌스는 국가가 생산, 전달하는 공공서비스에 공동체 조직 및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관리는 공동체와 시민들이 공공서비스와 협력 하에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이 두 모델과 달리 공동생산은 기존 공공서비스와 별도로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시민과 공동체가 스스로 자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동생산 모델은 공동관리 모델과 공동 거버넌스 모델과 달리 기존 공공서비스와의 분리성 및 시민들의 자율성이 가장 명확하게 내재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동관리 모델은 비영리조직이나 공동체 조직이 공공서비스 생산과 전달에 참여하는 것을 지칭하는 반면, 공동생산 모델은 개별 시민들이 자발적 서비스 생산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randsen & Pestoff, 2006).

공동생산 모델을 정립한 Cahn(2010)은 공동생산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가치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가치는 자산(assets)이다. 이 가치는 모든 사람이 공동생산의 주체이자 기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의 재정의이다. 이 가치는 그동안 양육, 가사, 이웃에 대한 봉사 등 일로 인정받지 못했던 활동 등을 명예로운 일(honoring work)로 상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가치는 사람들 간의 상호호혜성이다. 네 번째 가치는 공동체이며 공동체 가치는 당연히 신뢰, 호혜성, 그리고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치는

상호존중이다(Cahn, 2010). Cahn(2004)은 이와 같은 다섯 가지 가치를 제시하면서 공동생산은 시장경제와 공동체경제를 연결시키는 실제적이지 생산적인 교량이라고 간주했다. Cahn(2010)이 제시한 것과 같이 공동생산은 시민들의 참여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치들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적 가치들이 실제 시민들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공백상태로 남겨져 있다.

공동생산 개념이 국내 학계로 소개된 이후,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을 둔 공공서비스 생산 시도들을 공동생산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학계에서 공공서비스 생산에서 시민 참여는 주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의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 실태와 그 함의를 분석한 연구들이었다(Han, 2003; Kang, 2007). 하지만 최근에는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공동생산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Kim, 2017; Yeom, 2013; Choi *et al.*, 2015). 특히, Kim(2017)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공동생산 모델 노케어 사업을 분석하여 공동생산의 효과로 지역공동체 강화, 일자리 창출,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이 관찰되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 시민 참여의 사회 심리학적(socio-psychological) 동인에 대한 연구

1) 지역사회 소속감, 신뢰, 그리고 네트워크

현대 국가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함께 국가 운영 구조에서 시민들의 참여 확대는 필수적인 사항이 되어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에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며 맞춤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국가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현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운영에서 협업적 거버넌스(cooperative governanc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공공성에기반한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 동기에 대한 연구는 이타적 동기와 효용적 동기로 구분하여 논의되고 있다. 이타적 동기에 기반을 둔 참여 동기 설명의 대표적 접근방식은 자원 통합적 접근이다. 자원통합적 접근은 개인이 가진 자원을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 문화적 자원으로 구분하여 개인이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자원을 많이 가질수록 지역사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가령,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진 사회적 네트워크가 넓을수록 지역사회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며 그에 따라 참여 동기가 쉽게 형성될 수 있으며, 개인의 문화적 자원 또한 개인의 타인과 공유하는 가치관과 도덕관념을 일치시켜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Choi, *et al.*, 2015). 반면 효용적 동기로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설명하는 접근방식으로 대표적인 것이 기능주의적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는 참여를 통해 얻어지는 보상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지역사회 참여 동기를 설명한다(Choi, *et al.*, 2015).

공동생산 모델을 구성하는 규범적 가치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인들과 상당부분 겹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신뢰, 호혜성, 그리고 네트워크는 Cahn(2010)이 제시한 공동생산 모델 가치와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생산 모델에 있어 사회자본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사회자본 개념이 학문적 개념으로 본격 등장한 이후, 이제 미디어에서도 사회자본이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 개념은 여전히 학자들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다. 사회자본 개념에 대한 정의는 크게 개인적 수준과 집단적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정의는 배타적 이익을 성취할 수 있는 개인의 네트워크의 구조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집합적 수준에서 사회자본의 정의는 개인의 이익을 유보하고 집단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집단 내 사람들 간의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자본

을 정의한 대표적 학자인인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을 행위자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네트워크 자원으로 정의하였으며, 집합적 수준에서 사회자본을 정의한 대표적 학자인 Putnam(1995)은 사회자본을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사람들 간의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을 개인이 보유한 자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집단의 조직형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회자본의 기능은 달라진다. 먼저 개인이 소유한 자원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사회자본은 경제적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집단적 시각에서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의 성숙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참여 관점에서 사회자본을 논의하는 이들은 집합적인 관점에서의 사회자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집합적 관점에서 사회자본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혹은 규범)으로 구성된다. 이 중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미시적 측면에서 사람들 간의 신뢰와 호혜성이 형성되는 미시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신뢰와 호혜성은 네트워크를 움직이고 유지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지만 그것이 사회자본 속의 네트워크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사람들 간의 신뢰와 호혜성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신뢰와 호혜성은 실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고향 출신이라던가, 학교 졸업생들이 쉽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그 네트워크에 내재된 신뢰와 호혜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집합적 관점에서의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와 교환의 관점에서 사회자본을 정의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집합 사회자본을 지역적 차원에서 분류한 것이 지역 사회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Putnam(1995)은 투표자수, 신문구

독자수, 합창단의 멤버십, 풋볼클럽의 수 등 지역 네트워크의 참여를 지역 사회자본 측정의 주요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So(1999)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신뢰, 참여, 네트워크, 제도 및 규범, 이타주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참여 요소의 표현인자로 지역사회 행사참여, 각종 지역사회단체 회원 수,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활용횟수, 지역사회 대표로서의 활동 등을 지목하고 있고, 네트워크의 표현인자로서는 지역사회 내 공식 및 비공식 단체, 이웃의 범위 등을 지목함으로써 사회자본의 지역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자본 이론에서 가장 불명확하게 정의된 부문은 지역 사회자본의 형성과정에 관한 부문이다. 지역 사회자본의 형성과정은 기본적으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연계성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의 구성요소간의 연계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순환논리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러한 설명방식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이웃 간의 신뢰가 지역 네트워크 참여를 활성화시키지만 반대로 지역 네트워크 참여가 이웃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인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중 네트워크의 형성이 사회자본 형성의 1차적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신뢰와 호혜성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장소정체성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이끄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사회자본 형성 연구에서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네트워크 참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웃들로 구성된 지역에서 사회자본의 강도

가 높을 수 있으며(Bandura, 1997), 그 이유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이들은 상호간에 가치가 높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 간 사회자본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거주기간(Sampson, 1988), 주택의 소유 여부(Sampson, 1988), 거주 주택의 규모(Lewicka, 2010), 인종적 동일성(Davis, 2001) 등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이라고 지목되고 있다. 지역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지역 환경이 네트워크 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Lee, et. al.(2008)는 서울시 종로구의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 내 기초생활 수급자 비중과 인구 순이동 비율, 지방세 징수실적, 지역의 역사적 맥락 등의 지역적 특성이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지리학 부문에서 사회자본 형성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의 장소에 대한 심리적 태도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자본의 형성에 있어서 주민들의 지역과 장소에 대한 태도가 이들의 네트워크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Jorgensen & Stedman(2001)은 지역을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하는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그리고 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하는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y)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장소정체성이 강할 때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 및 호혜성 등이 강화되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참여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장소정체성은 특정 장소가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하는 심리적 현상을 의미한다. 장소정체성은 일견 장소애착심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소정체성은 특정 장소를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보다 적극적인 장소에 대한 장소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출신 고향을 밝히거나 거주 지역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성

격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장소정체성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장소의 존성은 장소애착심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명확하게는 특정 장소를 다른 장소와 비교하여 장소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¹⁾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서의 치안서비스와 교육서비스 등의 거주환경에 대한 상대적 만족감이 장소의존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tedman, 2002).

이와 같이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 모두 개인이 특정장소에 가지는 심리적 태도로 개인, 혹은 집단 간의 관계에 기반을 둔 사회자본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Jorgensen & Stedman, 2001), 더 나아가, 장소에 대한 태도가 지역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Manzo & Perkins(2006)은 개인이 장소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을 가질 때 집합행동이 보다 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Jorgensen & Stedman(2001)은 장소에 대한 심리적 태도와 사회자본, 그리고 사회참여와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장소에 대한 세 가지 심리적 태도 중 장소애착심과 장소정체성은 개인의 지역사회자본과 정적 관계를 맺으며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추동하고, 장소의존성은 사회자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학계에서도 비록 장소정체성 개념 정의에 기반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태도와 사회자본의 관계에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Choi & Kang(2001: 2)은 “특정장소 또는 지역사회에 대해 느끼는 인간이 느끼는 관심”으로 지역애착심을 정의하였고, 지역애착심은 지역정체성과 지역의존성으로 구별된다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Choi & Lim, 2005). 지역애착도에 관한 연구들은 이웃관계가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웃관계는 다시 지역애착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Lee, et. al.,

1) Jorgensen & Stedman(2001)은 태도이론에 기반하여 장소성(sense of place)을 1) 자아와 장소간의 관계의 근접성(장소정체성), 2) 장소에 대한 감정(장소애착심), 3) 다른 장소와의 대체성(장소의존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장소성을 12 단계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구성된 장소성 척도에 따 지역사회 참여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장소성 개념의 유용성을 확인했다.

2008). 즉, 지역 내에서 공원과 카페 등이 많이 존재하면 지역 주민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 이를 통하여 긍정적인 이웃관계는 주민들의 지역애착심을 높이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Choi & Lee, 2017; Choi & Kang, 2001; Choi & Lim, 2005). 이 같은 주장들은 본고에서 살펴본 장소정체성과 사회자본의 관계 설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역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장소성이라는 개념틀 하에서 분석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웃과의 관계와 지역사회 참여와의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민들의 심리적 태도와 사회자본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으나 지역애착심과 정체성, 그리고 의존성을 분석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이를 이웃관계와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장소성 개념 하에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한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III. 분석틀 및 자료

1.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공동생산 모델 현실화의 전제조건인 시민들의 공동생산 모델 참여 구조를 밝

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 보았을 때 시민들의 사회자본 분석 틀을 그대로 공동 생산 참여 구조 분석에 적용하기 보다는 사회자본의 구성 요인인 공동체성과 신뢰가 공동생산 참여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내에서의 세 가지 요인,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의 관계가 불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시민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선행된 뒤에 이 네트워크에 신뢰와 호혜성이 배태(embedded) 된다고 보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 형성에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생활영역은 교통의 발달에 따라 공간적으로 확대가 되었고, 이에 따라 전통사회와 달리 거주지를 중심으로 맺어지던 시민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지역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주민 간의 호혜성과 신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즉, 이웃 혹은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성과 신뢰가 지역사회 참여가 이어지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함으로써 시민들의 공동생산 참여 구조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다음 <Figure 1>과 같이 장소정체성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선행연구들에 기반을 두어 시민들의 장소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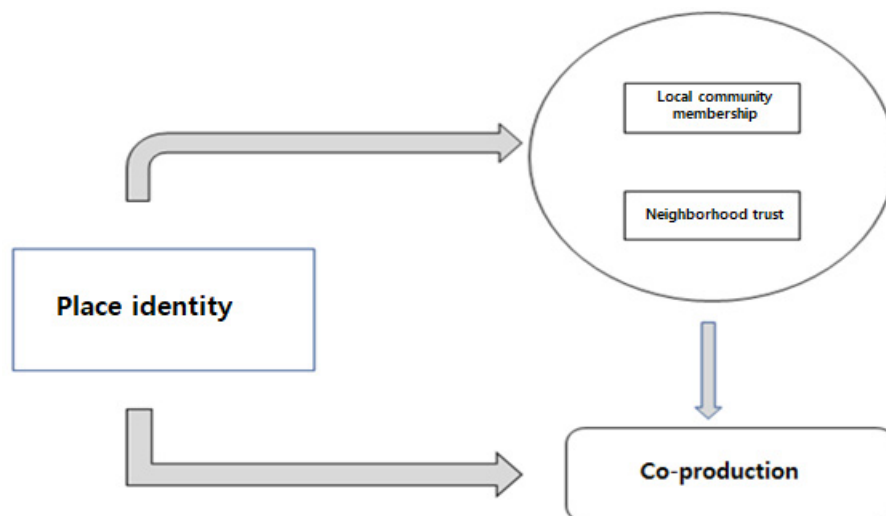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framework

심리적 태도가 공동체 소속감, 혹은 호혜성, 신뢰, 그리고 공동생산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래 분석틀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이 사회자본의 인지적 요소인 지역사회 소속감과 이웃에 대한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이 가정은 기존의 사회자본 형성 설명방식인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과 복합화가 신뢰와 호혜성을 증진한다는 명제와 다른 명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지역사회 소속감과 이웃에 대한 신뢰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 장소정체성으로 설정하고 두 개념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산에 대한 시민의 참여에는 장소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장소성과 사회자본의 인지적 요소가 결합되었을 시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시민들의 참여는 사회자본의 하나의 요소이자 사회자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추동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So, 1999). 하지만, 본고에서는 장소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기반을 두어 공동생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장소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추동되거나 장소성과 사회자본의 인지적 요소(지역사회 소속감 및 이웃 신뢰)와 결합하여 참여를 추동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2. 분석 자료 및 변수 정의

본 연구가 활용한 분석자료는 서울연구원의 서울서베이 데이터이다. 서울서베이는 서울연구원에서 격년으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설문조사이다. 이 중 2017년 서베이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만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42,68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서베이의 구체적인 조사 항목은 인구와 가구 현황, 경제, 주거와 생활, 교육과 보육, 건강과 보건, 안전과 재난, 환경, 교통, 문화와 여가, 거버넌스, 복지, 가치와 의식 등 12개 분야별 지표와 관련된 것들이다. 2017년 서울서베

이 자료는 서울 주민등록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자치구, 행정동, 주택유형, 3개 층으로 한 층화추출 샘플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서베이에서 제시된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종속변수와 핵심 설명변수를 설정하였다.

먼저, 시민들의 공동생산 참여 변수로서 시민들의 마을만들기 및 공유도시 관련 사업의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주민들의 이웃관계망 회복과 호혜적인 생활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주도로 자원을 모으고 활동을 하고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하는 당사자주의와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자원을 발굴,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이어졌으며, 서울시는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부족한 인적 역량, 인프라, 그리고 재정 부문에 있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사업의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결과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마을공동체에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육 및 돌봄 등 사회서비스, 문화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 등 그동안 지방정부가 제공했던 공공서비스를 생산, 전달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Ahn & Gu, 2017). 서울시에 의하면 2012년에서 2015년까지 4년 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에 최소 13만 명에서 최대 23만여 명의 서울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hn & Gu, 2017). 서울시의 공유도시 사업 또한 서울시가 2012년 공유도시서울을 선포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서울시민들 주도로 지식, 물건, 교통수단, 주거 등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공유 공동체와 공유기업을 조직 혹은 설립하여 공유경제에 기반을 두며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만한 서비스를 생산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요약하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과 공유도시 사업은 공통적으로 시민들의 주도와 참여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생산하거나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생산하는 공동생산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공동생산 참여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과 공유도시 사업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사회자본과 장소성이 시민들의 사업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설정한 핵심 사회심리학적 설명변수는 1) 지역공동체 소속감, 2) 이웃 신뢰, 3) 장소정체성이며, 이 세 변수와 연관된 사회심리학적 변수로 4) 공공기관 신뢰 5) 장소의존성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자본 논의에서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고려하는 시

각이 있다(So, 1999).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조적 설명 변수로 추가하였다. 또한 장소성 연구에서 장소정체성과 같이 논의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심리학적 태도 변수인 지역의존성 변수를 보조적 설명 변수로 모델에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제변수는 거주형태, 성, 연령, 혼인상태, 수입, 학력, 소득, 직업지위, 현 주택 거주기간, 주관적 사회적 계층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모델에서 채택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다음 <Table 3>과 같이 분석하였다. 변

Table 1. Survey questions and explanatory variable manipulation

Variables	Questions	Scale	Manipulation
Local community membership(LCM)	Do you feel that you are one of member of local community?	10	Dummy
Neighborhood trust(NT)	Do you trust your neighbor?	10	Dummy
Place identity(PI)	Do you have pride of Seoul?	10	Dummy
Place dependency(PD)	Do you satisfy your living environment?	10	Dummy
Public trust(PT)	Do you trust public institutions?	10	Dummy

※ Source: Seoul Research Institute(2007).

Table 2. Variable definition

Variables	Variables	Coding
Dependent	Participation in co-production	0=No 1=Yes
	Neighborhood trust(NT)	0=No 1=Yes
Independent	Public trust(PT)	0=No 1=Yes
	Local Community membership(LCM)	0=No 1=Yes
	Place identity(PI)	0=No 1=Yes
	Place dependency(PD)	0=No 1=Yes
	Gender	0=No 1=Yes
Control	Age	continuous variable
	Marital status	1.Married, 2.Single, 3.Divorced, 4. separation, 5. Bereavement, 6.Cohabitation
	Education	1=<Middle School, 2=High School, 3=>College
	Housing type	1=House, 2=Apartment 3=Multi-family 4=Tenement, 4=Others
	Type of residence	1=Owned, 2=Jeonse, 3=Wolse(Deposit), 4=Wolse(No Deposit), 5=Free
	Occupation	1=the Unemployed, 2=Student, 3.=House Wife, 4=Manager/Professional, 5=White Collar worker, 6=Sale/Service, 7=Skilled Worker, 8=Farmers, 9=Low Skilled Worker
	Income	1=Low(< 50% of Median Income) 2=Middle(50-150% Median Income), 3=>Upper(150% Median income)
	Length of residence in Seoul	continuous variable(Logged)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Participation	Age	Housing type	Type of Residence	Education	Marital Status	Occupation	Income	PI	NT	PT	LCM	PD	Length of residence
Participation	1.00													
Age	0.01	1.00												
Housing type	0.00	-0.02	1.00											
Type of residence	-0.02	-0.23	-0.02	1.00										
Education	-0.01	-0.53	0.02	0.05	1.00									
Marital status	-0.01	0.00	0.00	0.13	-0.14	1.00								
Occupation	0.01	0.40	-0.02	0.00	-0.53	0.11	1.00							
Income	0.00	0.00	0.01	-0.07	0.30	-0.18	-0.32	1.00						
PI	0.11	0.00	0.01	-0.04	0.03	-0.03	-0.02	0.05	1.00					
NT	0.01	0.03	-0.01	-0.02	0.01	-0.04	0.00	0.01	0.06	1.00				
PT	-0.13	0.02	0.00	0.00	0.01	-0.03	-0.02	0.02	0.03	0.40	1.00			
LCM	0.01	-0.02	0.00	-0.07	0.08	-0.07	-0.07	0.09	0.12	0.11	0.09	1.00		
PD	0.00	-0.04	0.02	-0.07	0.13	-0.08	-0.10	0.12	0.13	0.10	0.08	0.51	1.00	
Length of residence	0.04	0.39	-0.03	-0.26	-0.16	-0.03	0.11	0.04	0.09	0.05	0.00	0.02	0.00	1.00

수간의 상관관계에서 장소의존성 변수는 사회자본의 인지적 변수 중에서 지역사회 소속감 변수와 비교적 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자본의 인지적 요소를 종속변수로 하는 첫 번째 단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로짓(Logit) 회귀 분석을 사용한다. 로짓 모형은 확률효용이론(random utility)에 기초한 이산선택모형이라고 불린다. 이런 점에서 로짓 모형은 주어진 선택 대안 내에서 가장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민들이 마을공동체사업 혹은 공유도시 사업 등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를 효용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로짓 회귀분석을 본고의 분석 방법으로 채택한 이유는 로짓 회귀분석이 본고에서 상정한 공동생산 참여 여부와 같이 종속변수가 1 또는 0인 이진형 변수에서 사용하는 분석이며 계수가 log odd ratio가 되기 때문에 결과 해석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짓 회귀 분석을 통하여 본고에서 상정한 장소정체성 등의 설명변수와 공동생산 간의 관계를 함수화 하여 장소정체성, 지역사회소속감, 이웃 신뢰 등을 가진 시민들이 공

동생산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참여하지 않느냐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IV. 분석결과 논의

우선적으로 본고에서는 장소정체성과 지역사회 소속감과 이웃간의 신뢰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사회 소속감과 이웃신뢰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Table 4>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결과는 사회자본의 두 구성 요소인 지역공동체 소속감과 이웃에 대한 신뢰에 장소정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장소정체성을 가진 서울 시민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웃에 대한 신뢰와 지역공동체 소속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역의 생활환경에 만족감을 가진 서울 시민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웃에 대한 신뢰와 지역공동체 소속감을 가질 가능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orgensen & Stedman(2001)의 장소성과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장소정체성과 이웃 간의 신뢰, 지역사회 소속감이 공동생산 참여 여부간의 관계를

Table 4. Results of logit regression models for LCM and for NT

Variables	NT		LCM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Age	-0.014	0.009	-0.025*	0.010
Age*Age	0.000	0.000	0.000**	0.000
Housing type(Ref=House)				
Apartment	-0.085*	0.034	0.076	0.039
Multi-family	-0.213***	0.049	0.041	0.054
Tenement	0.023	0.050	-0.037	0.055
Others	-0.430	0.243	0.483	0.268
Type of residence(Ref=Owned)				
Jeonse	-0.021	0.033	-0.140***	0.038
Wolse(Deposit)	-0.023	0.053	-0.394***	0.055
Wolse(No Deposit)	-0.001	0.294	-1.108***	0.255
Free	0.326	0.467	-0.985*	0.430
Education(Ref=<Middle school)				
High school	0.197**	0.074	0.300***	0.075
>College	0.205*	0.081	0.497***	0.083
Marital status(Ref=Married)				
Single	-0.239***	0.047	-0.152**	0.052
Divorced	-0.356***	0.068	-0.421***	0.066
Separation	-0.085	0.081	-0.194*	0.084
Cohabitation	-1.188	0.801	0.445	0.664
Occupation(Re=the unemployed)				
Manager/Professional	-0.144	0.087	0.033	0.092
White collar	-0.208**	0.078	0.419***	0.081
Sale/Service	-0.200	0.070	0.325***	0.071
Skilled	-0.183*	0.079	0.321***	0.072
Farmer	-0.597	0.523	2.013	1.036
Income(Ref=Low income)				
Middle income	-0.016	0.083	0.166*	0.084
Upper income	-0.072	0.087	0.483***	0.090
PI	0.241***	0.043	0.685***	0.042
LCM	0.433***	0.038		
NT			0.431***	0.038
PT	1.783***	0.030	0.303***	0.040
Length of residence(logged)	0.178***	0.027	-0.006	0.030
Constant	-1.705***	0.251	0.254	0.273
N of cases	2,5107		N of cases	2,5107
LR chi ² (30)	4376.62		LR chi ² (30)	1177.06
Prob > chi ²	0		Prob > chi ²	0
Pseudo R ²	0.1311		Pseudo R ²	0.0473

*p<.05, **p<.01, ***p<.001

분석하기 위하여 공동생산 참여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공동생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자본적

Table 5. Relations of PI with NT and LCM in citizens' decision for participation in co-production

PI*NT	Coefficient	S.E	PI*LCM	Coefficient	S.E
PI(N)*NT(Y)	0.264	0.167	PI(N)*LCM(Y)	-0.322*	0.158
PI(Y)*NT(N)	1.256***	0.094	PI(Y)*LCM(N)	1.023***	0.128
PI(Y)*NT(Y)	1.604***	0.097	PI(Y)*LCM(Y)	1.096***	0.127

※ Note: Whole results of the analyses is presented in Appendix 2.

*p<.05, **p<.01, ***p<.001

요인보다는 장소성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장소성 요인 중에서 장소정체성 변수는 공동생산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소속감과 이웃 간의 신뢰 변수를 장소정체성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각각 공동생산 참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소정체성과 지역사회 소속감을 상호교차항으로 구성했을 때, 장소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공동생산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었다. 반면 지역사회 소속감은 장소정체성이 없을 때에는 공동생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관계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시민들이 장소정체성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면 공동생산 참여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장소정체성과 이웃과의 신뢰를 상호교차항으로 구성했을 때에도 장소정체성이 있을 때 공동생산 참여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웃 간의 신뢰 또한 장소정체성이 없을 때에는 공동생산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주민들의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을 신뢰했을 시, 이웃에 대한 신뢰감과 지역사회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에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웃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지만 지역사회 소속감과 지역 거주기간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본고에서 제시한 분석모형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서울 시민들의 서울시의 공동생산 참여 결정은 장소정체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서울이라는 지역에 있어서 자부심과 정체성을 동일시한다면 서울시에 시행하는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사업에 보다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존

이웃에 대한 신뢰 및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등 사회적 자본적 요인은 장소정체성이 없을 때 단독으로 공동생산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소정체성, 즉 시민들의 서울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 동일화가 시민들이 지역공동체성과 이웃에 대한 신뢰를 추동하여 공동생산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V. 결론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하여 한국에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서비스의 확대는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인하여 아동에 대한 보육과 노인에 대한 돌봄 등에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역할 확대는 가족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의료, 환경, 주거 등의 영역에서도 시민들의 서비스 요구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그 수준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서비스 확대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내 갈등 사례 또한 많아지는 추세이다. 더불어 국가의 공공서비스의 확대에는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또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Han, 2003).

공동생산 모델은 공공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들이 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생산, 공급, 소비하는 새

로운 민관거버넌스 모델이다. 기존 서비스의 소비자에 불과했던 시민들이 생산자로서의 공공서비스를 생산한다면 소비자의 서비스 요구에 기반을 둔 맞춤형 서비스 생산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는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모델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공동생산 모델의 시민 참여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동생산 기반 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과 공유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공동생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관계적 요인들과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의 공동생산 사업 참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에 대한 심리적 요인, 즉 장소정체성인 것이었다. 즉 서울 시민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생산 모델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시민들의 장소정체성은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사업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소속감인 공동체 의식과 이웃 간의 신뢰에도 영향을 줘 시민들의 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들의 장소정체성이 부재할 시에는 지역사회 소속감과 같은 공동체 의식과 이웃 간의 신뢰는 사업 참여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기존 지역사회 참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던 사회자본적 요인들 공동체적 호혜성, 신뢰 등이 개인의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애착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의미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자본 이론에서는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는 사회자본의 표현인자로서 지

역의 사회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어 왔으나 이러한 참여가 다른 사회자본 요인들인 공동체적 호혜성과 이웃과의 신뢰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사회자본의 신뢰와 같은 인지적 요소들이 시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사회 참여가 신뢰와 호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분석들도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자본 이론에서 그동안 논란의 지점이었던 사회자본의 인지적 요인들이 표현인자와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사람들 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사회자본 이론에서 그동안 장소정체성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사회자본이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의 내생적 발전에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그렇다면 사회자본이 어떻게 강화되고 강화된 사회자본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을 어떻게 추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장소정체성이 주민들 간의 신뢰와 호혜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한 주민들과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전략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공간과 장소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민의 호혜적인 지역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지역발전 전략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본고에서 다룬 공동생산 모델은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서비스 계획 단계에서 수용하는 한편, 주민들이 직접 서비스 생산에 참여하여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공공서비스 확대를 들

러싸고 벌어졌던 지역사회 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공공서비스 공동생산은 낯선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과거 새마을운동부터 현재의 마을만들기 사업, 사회적경제까지 다양한 사업 형태로 실현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향후 주민들이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모델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동생산 참여 사다리(co-production ladder)와 같은 주민들의 숙의, 서비스 계획 결정, 생산, 평가 등으로 이어지는 공통적 공동생산 모델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방지하고 보다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 전달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애착심을 높일 수 있는 지역문화 및 역사에 대한 시민 교육과 관련 시민들의 자조 활동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이러한 교육과 활동이 시민들이 지역문제 인식과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 공간을 제공해 주신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정무권 원장님과 연구원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 Ahn, Hyun Chan and A Young Gu. 2017. Analysis and Implication of Community Support Program in Seoul. Seoul Institute.
- Arstein, Sherry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35(4): 216-224.
- Bandura, Albert. 1997. *Self Efficacy*. New York: Random House.
- Brandsen, T. and V. Pestoff. 2006. Co-production, the Third Sector and the Delivery of Public Services: An Introduction. *Public Management Review*. 8(4): 493-501.
- Cahn, E. S. 2004. *No More Throw-away People: The Co-production Imperative*. Washington: Essential Books.
- Cahn, E. S. 2010. Co-production 2.0: Retrofitting Human Services Programs to Tap the Renewable Energy of Community. *Community Currency Magazine*. March-April. 36-39.
- Cho, Hye Min and Su Gi Lee.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Neighborhoo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the Level of the Social Capital: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Walking Activity. *Asian Pacific Planning Review*. 52(4): 111-134.
- Choi, Jimin, Min Hong Lee, Sang Weon Kim, Hwa Hwan Kim, and Soon Eun Kim. 2015. A Study on the Motivation of the Elderly for Participating Care Service Co-production.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5(1): 245-278.
- Choi, Seoung Dam and Shin Kyum Kang. 2001. The Conceptual Frameworks of Community Attachment: Implication to Tourism Development.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Studies*. 20: 203-222.
- Choi, Yeol and Ha Kung Lim. 2005. The Perception and the Determinants of Place Attachment.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0(2): 53-64.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95-120.
- Davis, Mike. 2001. *Magical Urbanism: Latinos Reinvent the US Big City*. New York: Verso.
- Gebauer, H., M. Johnson, and B. Enquist. 2010. Value Co-creation as a Determinant of Success in Public Transport Services. A Study of the Swiss Federal Railway Operator(SBB). *Managing Service Quality*. 20(6): 511-530.
- Goodwin, N. and E. Cahn. 2018. Unmet Needs and Unused Capacities: Time Banking as a Solutio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Partnership Studies*. 5(1): Article 3.
- Han, San Il. 2003. Different Types of American Neighborhood Participation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n Citizen Participa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7(3): 159-180.
- Jorgensen, Bradley S. and Richard C. Stedman. 2001. Sense of Place as an Attitude: Lakeshore Owners Attitudes Towards Their Properti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 233-248.
- Kang, In Sung. 2007. Study on Participation Capacity, Process, and Performance Evaluation for Citizens' Active Policy Involvement.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16(4): 29-56.
- Kim, Hak Sil. 2017. A Study of Service Co-production Based on Community: Focused on Chnngbuk's '9988 Happiness Protector Business. *Korea Policy Studies Review*. 26(2): 79-106.
- Kim, Pil Du and In Su Choi. 2018.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Settlement Policy of Local Public Servic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Lee, Kyung Young, Young Hyun Cho, and Moon Gi Jeong. 2008. A Study on the Effect of Physical Environment on the Local Attachment Mediated by Neighbor Relations: 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2(4): 93-122.
- Lee, Sook Jong, Jun Kyu Choi, and Hi Jeong Yi. 2008. Influence of Soci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of Urban Residents upon Their Social Capital: The Case of Jongno-gu.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22(4): 101-132.
- Osborne, S. P. Z. Radnor, and K. Strokosch. 2016. Co-production and the Co-creation of Value in Public Services: A Suitable Case for Treatment? *Public Management Review*. 18(5): 639-653.
- Osborne, Stephen and Kate McLaughlin. 2004. The Cross-cutting Review of the Voluntary Sector: Where Next for Local Government: Voluntary Sector Relationships? *Regional Studies*. 38(5): 571-580.
- Ostrom, E. 1972. Metropolitan Reform: Propositions Derived from Two Traditions. *Social Science Quarterly*. 53(3): 474-493.
- Ostrom, E. 1975. *The Delivery of Urban Services: Outcomes of Change*. Beverly Hills, CA: Sage.
- Ostrom, Elinor and Vincent Ostrom. 1977. Public Goods and Public Choices. E. S. Savas. eds. *Alternatives for Delivering Public Service*. Boulder, CO: Westview Press.
- Parks, R. B., P. C. Baker, L. Kiser, R. Oakerson, E. Ostrom, V. Ostrom, S. L. Percy, M. B. Vandivort, Gordon P. Whitaker, and R. Wilson. 1981. Consumers as Coproducers of Public Services: Some Economic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Policy Studies Journal*. 9(7): 1001-1011.
- Percey, S. L. 1984.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Coproduction of Urban Services. *Urban Affairs Quarterly*. 19(4): 431-446.
- Pestoff, V. 1998. *Beyond the Market and State: Civil Democracy and Social Enterprises in a Welfare Society*. Aldershot: Ashgate.
- Putnam, Robert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Sampson, Robert J. 1988. Local Friendship Ties and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 Multilevel Systemic Mode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5): 766-799.
- So, Jin Kwang. 1999.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Development. *Korea Community Development Studies*. 24(1): 29-47.
- Stedman, Richard C. 2002.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Place: Predicting Behaviour from Place-based Cognitions, Attitude and Identity. *Environment and Behavior*. 34(5): 561-581.
- Thomas, John Clayton. 1995. *Public Participation in Public Decisions: New Skills and Strategies for Public Managers*. San Francisco: Jossey-Bass.
- Yeom, Jihye. 2013. Implementation Process and Prospects of the Elderly: The Elderly Care Program.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3(2): 221-238.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인성. 2007. 공공정책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역량, 과정,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6(4): 29-56.
- 김필두, 최인수. 201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지방행정연구원.
- 김학실. 2017. 공동체 기반 서비스 공동생산(co-production)에 관한 연구: 충북의 9988 행복지킴이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6(2): 79-106.
- 소진광. 1999.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개발 논리. 지역사회개발연구. 24(1): 29-47.
- 안현찬, 구아영. 2017. 서울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성과 평가 와 정책 과제. 서울연구원.
- 염지혜. 2013. 노노(老老)케어의 시행과정과 향후 정책적 과제. 한국노년학. 33(2): 221-238.
- 이경영, 조영현, 정문기. 2008.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이 이웃관계를 매개로 하여 지역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

- 구. 32(4): 93-122.
- 이숙중, 최준규, 유희정. 2008. 사회적 특성과 행위 변수가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 종로구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2(4): 101-132.
- 조혜민, 이수기. 2017. 근린환경특성이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행활동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국토계획학회지. 52(4): 111-134.
- 최승담, 강신겸. 2001. 지역사회 애착도의 구성요인에 관한 개념적 고찰: 관광개발에 대한 시사점. 사회과학연구. 20: 203-222.
- 최열, 임하경. 2005.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40(2): 53-64.
- 최지민, 이민홍, 김상원, 김화환, 김순은. 2015. 지속가능한 고령자 복지 패러다임의 가능성: 고령자의 돌봄서비스 공동생산 동기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1): 245-278.
- 한상일. 2003. 미국 근린참여제도의 유형별 분석과 한국의 주민 참여에 대한 함의. 한국행정학보. 37(3): 159-180.

Received: Jan. 10, 2020 / Revised: Feb. 6, 2020 / Accepted: Feb. 6, 2020

갈등관리형 공동생산(Co-production) 참여 동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공유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 동인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생산에 있어 지역 내 주민들의 갈등을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공동생산에 대한 시민참여 요인을 파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동생산 모델에 기반을 둔 사업인 마을공동체 사업과 공유도시 사업에서 서울 시민들의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관계적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즉 장소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시 공동생산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장소정체성은 직접적으로 사업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관계적 요인인 지역사회 소속감과 이웃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사업 참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역사회 내 갈등 관리를 위한 공공서비스에 공동생산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애착심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갈등관리, 민관거버넌스, 공동생산, 장소정체성, 사회자본, 공공서비스

Profiles **Seok Hyeon Choi** : He received his B.A., M.A. from Yonsei University, Korea in 2004. He also received his Ph.D from University of Oxford, the UK in 2010. He is a Visiting researcher of the Institute for Poverty Alleviatio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t Yonsei University and a Lecturer of the Graduate School of Government and Business at Yonsei University. His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social policy, migration integration, and social economy. He has published numerous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books(shsego@naver.com).

Appendix 1. Descriptive information of variables

	N	Mean	S.D	Min	Max
Participation	40,044	0.151	0.358	0	1
Age	40,044	49.802	15.685	21	97
Housing type	40,044	2.007	0.946	1	5
Type of residence	40,044	1.495	0.682	1	5
Education	40,044	2.394	0.720	1	3
Marital status	40,044	1.558	1.098	1	6
Occupation	40,044	4.473	1.928	1	9
Income	25,107	2.391	0.552	1	3
PI	40,044	0.857	0.35	0	1
NT	40,044	0.387	0.487	0	1
PT	40,044	0.327	0.469	0	1
LCM	40,044	0.777	0.416	0	1
PD	40,044	0.806	0.396	0	1
Length of residence(logged)	40,044	3.369	0.602	0	1

Appendix 2. Results of logit regression models for the participation

Variables	Model 1		Variables	Model 2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Age	-0.025*	0.011	Age	-0.025*	0.011
Age*Age	0.000	0.000	Age*Age	0.000	0.000
Housing Type(Ref=House)			Housing Type(Ref=House)		
Apartment	-0.092*	0.042	Apartment	-0.092*	0.042
Multi-family	-0.272***	0.064	Multi-family	-0.272***	0.064
Tenement	0.079	0.061	Tenement	0.080	0.061
Others	0.327	0.258	Others	0.317	0.258
Type of residence(Ref=Owned)			Type of residence(Ref=Owned)		
Jeonse	-0.113**	0.042	Jeonse	-0.113**	0.042
Wolse(Deposit)	-0.083	0.068	Wolse(Deposit)	-0.083	0.068
Wolse(No Deposit)	0.421	0.310	Wolse(No Deposit)	0.425	0.310
Free	-0.724	0.747	Free	-0.734	0.747
Education(Ref=<Middle school)			Education(Ref=<Middle school)		
High school	-0.208*	0.089	High school	-0.208*	0.089
>College	-0.171	0.098	>College	-0.171	0.098
Marital status(Ref=Married)			Marital status(Ref=Married)		
Single	-0.107	0.059	Single	-0.106	0.059
Divorced	-0.211*	0.089	Divorced	-0.210*	0.089
Separation	-0.053	0.101	Separation	-0.052	0.101
Cohabitation	-0.684	1.054	Cohabitation	-0.667	1.054
Occupation(Re=the unemployed)			Occupation(Re=the unemployed)		
Manager/Professional	-0.125	0.108	Manager/Professional	-0.124	0.108
White collar	-0.095	0.096	White collar	-0.094	0.096
Sale/Service	-0.140	0.087	Sale/Service	-0.138	0.087
Skilled	0.030	0.096	Skilled	0.031	0.096
Farmer	0.640	0.539	Farmer	0.646	0.540

Appendix 2. Results of logit regression models for the participation (continued)

Variables	Model 1		Variables	Model 2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Income(Ref=Low income)			Income(Ref=Low income)		
Middle income	-0.058	0.103	Middle income	-0.056	0.103
Upper income	-0.030	0.108	Upper income	-0.028	0.108
PI*NT			PI*NT		
PI(N)*NT(Y)	0.264	0.167	PI(N)*NT(Y)	-0.322*	0.158
PI(Y)*NT(N)	1.256***	0.094	PI(Y)*NT(N)	1.023***	0.128
PI(Y)*NT(Y)	1.604***	0.097	PI(Y)*NT(Y)	1.096***	0.127
PT	-1.070***	0.048	PT	0.344***	0.040
LCM	0.042	0.053	LCM	-1.071***	0.048
PD	-0.058	0.056	PD	-0.055	0.056
Lengthe of residence(logged)	0.148***	0.037	Lengthe of residence(logged)	0.150***	0.037
Constant	-2.099***	0.322	Constant	-1.901***	0.330
N. of cases	25107		N. of cases	25107	
LR chi ² (30)	1038.19		LR chi ² (30)	1043.74	
Prob > chi ²	0		Prob > chi ²	0	
Pseudo R ²	0.0487		Pseudo R ²	0.049	

*p<.05, **p<.01, ***p<.001